구암스님 '영남범패' 첫 집대성

10여년간 수집채록 테이프 제작

불공의식 · 지장권공 · 영산작법등 수록

"재(齋)가 간소화되고 불교의 전통의식이 사라져가는 시대조류에 따라 일반인들에게는 물론 스님들에게조차 범패가 외면당하고 있어 점차 그 원형이 잃어가는 상황이 안타까워 테이프에 담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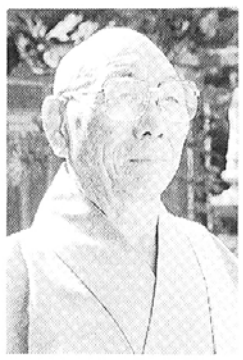
우리나라 범패의 한 맥을 이루고 있는 영남범패가 최초로 집대성, 20개의 테이프에 담겨 그 원형보존이 가능하게 됐다. 인간문화재(부산시 무형문화재 9호)인 구암스님(대한불교 법화종 종정 · 71세)은 영남지역에 전해내려오는 범패를 10여년에 걸쳐 수집채록한 '영남범음범패집'을 달리미디어(대표 이판암)에서 발간했다. 이 테이프에는 불공의식, 영산작법, 지장권공, 법사이운, 배송, 종성 등이 수록돼 망자를 부르고 대접하고 달래서 보내주는 전 과정을 수록해 놓았다.

◇구암스님이 집대성한 영남범패가 테이프 20개에 집대성됐다.

구암스님은 "과연 제대로 됐는지 웃대의 모든 어장스님께는 부끄러우나 나한테 전승된 것을 매듭을 짓게 되어 다행"이라고 오랜 원력이 이루어짐을 기뻐했다.

9세기경 신라의 진감국사가 중국으로부터 배워와 경북 남장사와 동화사를 거쳐 하동 쌍계사에서 시작된 범패는 경기 충청 전라도의 웃녁소리와 영남의 아랫녁 소리로 크게 나뉘어 구전심수(口傳心受)되어 오고 있는데, 웃녁이 고성(高聲)과 기교가 많은데 비해 아랫녁 소리는 힘이 있고 우렁차다는 특색을 갖고 있다.

구암스님의 범패는 통범소리(통도사 범어사)라 하여 용운스님(부산시 무형문화재 1호, 73년 작고)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또다른 계보는 범성스님의 제자인 해강스님(영산작법 인간문화재 · 80세)으로 안정소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용운스님과 범성스님이 대산스님이라는, 같은 스승에게서 전수받은 점으로 보아 그 원형에서 차이가 있다기 보다 사찰과 지역적 차이에 의해 약간의 변형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구암스님은 범패전수를 위해 지난 93년부터 '범음범패불교의식전문교육원'을 개원하고 전수생배출에 힘쓰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 20명을 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통감해 테이프 제작이 '전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임을 기대했다.

"평생동안 수련해야 함을 각오하고 배울수록 환희심이 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구암스님은 "영남범패의 전승을 위해 종단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에 임해줬으면 하고 차후 비디오로도 제작했으면 한다"고 말한다.

한편 달리미디어는 빠른시일 안에 해강스님의 안정소리 녹음과 비디오 제작에 들어가 내년초 선보일 예정이며 영남범패의 소리와 작법 교과서도 제작할 계획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구화산 방장 인덕스님 '김교각展' 관람

구화산 방장 인덕스님을 비롯 중국 안휘성 문화교류단(단장 악서창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25명이 내한, 지난 22일 경복궁 민속박물관에서 김교각스님展(11월29일까지)을 관람했다. 인덕스님은 이날 "한국에서 처음 열린 김교각스님展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불교가 발전하고 양국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신라왕자 김교각스님展'을 보고

김 종 규 〈삼성출판사 회장〉

오랫만에 '聖僧의 혼' 체험

천고마비의 풍성한 계절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오래간만에 전시다운 전시를 보고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크나큰 감동이 아닐 수 없다.

신라왕자 김교각은 통일신라시대 왕족으로 태어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중국으로 건너가 지장보살이 되어 중국불교계에서 널리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지금까지 그분의 존재조차 알지못해 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전시회는 무척 뜻깊다고 생각된다. 유물의 희귀성 및 가치성의 뛰어난 점도 그렇지만 마치 자연스럽게 관람을 유도하는 전시구성이 유난히 이색적이다. 또다시 이러한 전시를 서울에서 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마저 들 정도다.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맨먼저 눈에 띄는 것이 지장보살 서원이다. '중생을 모두 제도한 뒤에 깨달음을 이룰 것이며 지옥이 빌 때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는 서원 글귀는 관람객을 압도한다. 스님의 탄생부터 수행정진, 열반에 들어가는 과정을 각종 자료들로 정리 표현된 패널과 김교각스님 유물 및 당시 당(唐)대의 유물, 김교각스님을 칭송한 각종 희귀한 유물들이 일목정연하게 전시되어 흥미를 유도한다.

특히 등신불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풀어줄 환생부분에서는 중국 구화산에서 최근 입적(1991년)하여 새로운 등신불로 현세에 다시 나타난 자명대사의 개함과정 비디오를 방영하여 관람객 모두에게 종교적인 신비감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해줘 환희심이 난다.

또한 전시 말미에서는 지난 초파일 특집으로 KBS에서 제작 방영한 '대륙으로 간 왕자' 비디오 영상자료를 방영해주고 있다. 앞의 전시내용을 최종 정리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시한번 세심한 부분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전시구성은 전시문화의 새로운 접근이라 생각된다.

뜰앞에 잣나무

11월3일까지 연장

10·27 재조명 성과…2500여명 관람

지난 20일 막을 내릴 예정이던 불교연극 '뜰앞에 잣나무(원담스님 작 김태수 연출)'가 11월 3일까지 대학로 동숭아트센터에서 연장공연에 들어갔다. 한국불교 최근세사의 최대 치욕사건인 10 · 27을 소재로 해 세상사의 인연고리를 풀어본 '뜰앞에…'는 코미디, 섹스 등 가벼운 볼거리에 치우친 요즘 연극계에서 보기드문 정통연극으로 평가받으며 관객들의 꾸준한 호응을 받아 9월 14일부터 10월29일 현재 2천5백여명이 보고 간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초심호 계원장 월서스님, 법타(은해사 주지) 도안(미국 LA 관음사 주지) 스님 등 종단스님들이 관람해 눈길을 모았다. 지난 1980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 10 · 27법난의 최고핵심 피해자였기에 월주스님의 연극관람은 남다른 감회를 주었으리라는 관심속에 스님은 관람후 분장실로 직접 출연자들을 찾아 '연극이 훌륭했다'고 격려하고 "군부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요구를 불교계가 거절한 것이 10 · 27의 주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당시를 잠시 회고하기도 했다.

지난 27일 '뜰앞에 잣나무'를 보고나온 최정연씨(50, 중곡동)는 "10 · 27법난발생 16년을 맞는 오늘 이 연극을 보게 되니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아직도 뚜렷한 진상규명이 없는 채 유야무야로 세월만 보내는 차에 10 · 27을 통해 교계의 여러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한 '뜰앞에 잣나무'라는 연극이 나온 것만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시대를 예견하는 불교문학으로"

불교문인협 26 · 27일 '21세기…' 주제 심포지엄

올해 '문학의 해'를 기념해 불교문학동호인들의 모임인 '한국불교문인협회'는 지난 26~27일 춘천 삼운사에서 '21세기의 불교문학'을 주제로 제11회 문학심포지엄을 가졌다.

불교문인협회원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림영창씨(불교문인협회장)가 '21세기의 불교문학' 양기봉씨(전통불교연구원 상임학술위원)가 '21세기 불교문학의 변천' 김영기씨(문학평론가)가 '통일시대의 문학혁명'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불교문학이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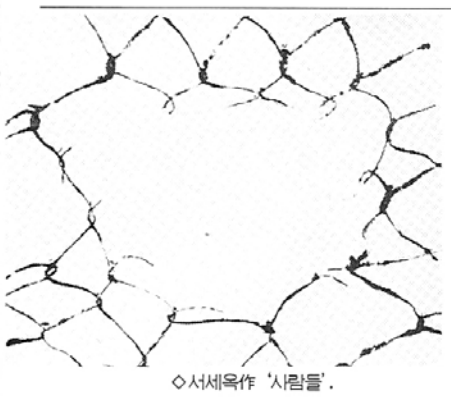
림영창씨는 "불교사상의 기초위에 예술적 사상 감정 상상을 표현한 것이 불교문학"이라 정의하고 "이시대의 모든것이 문학의 소재가 되는 만큼 불교문학은 이를 잘 다듬어 시대를 예견하고 이끌어가는 문학으로 성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봉씨는 "전생담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등 경전과 마명의 불소행찬 용수의 대지도론 등은 훌륭한 불교문학"이라 전제하고 "이같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발굴해 오늘의 상상력을 가미해 발전시킨다면 시대를 초월한 불교문학이 나올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김영기씨는 "분단에서 통일시대가 열리는 21세기 역사적 전환기의 모색이 곧 한국문학의 혁명적 모습"이라면서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21세기에 있어 민족문학이 세계적 문학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원효의 '화쟁'사상과 만해의 '님' 사상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또 "님의 침묵은 진리의 경지가 침묵임을 시사한다면, 21세기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이 지향할 바는 님의 말씀의 형상화"라고 역설했다.

이경숙 기자

문화소식



◇서세옥作 '사람들'.

서세옥화백 개인전

40년 결산 화집 펴내

원로 한국화가 서세옥 화백(67)의 개인전이 지난 17일부터 31일까지 사간동 갤러리 현대에서 열리고 있다.

인간을 주제로 한 이번 개인전에는 세련된 필선과 변화를 담고 있는 수묵의 조형미, 여백의 응용등 관조와 명상의 세계를 담은 수묵추상 작품 3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한편 서세옥화백은 개인전에 맞춰 1959~1996년의 그림 138점을 수록한 화집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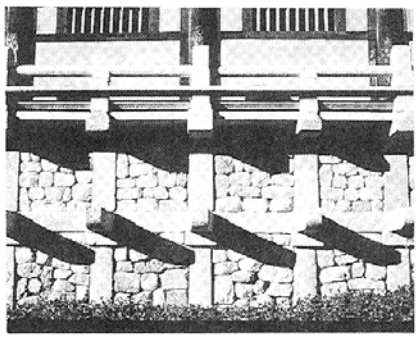
불미전 작품공모

제16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 내년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공평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이에따라 주관처인 조계종 문화사회부는 내년 1월 29일~2월 26일동안 원서교부와 2월19~2월28일 작품접수를 받는다.

이번 불미전은 탱화 불상 공예 등 △예배용(전통)불교미술과 동 · 서양화 공예 서예(전각) 사진 등의 △감상용(현대) 불교미술로 나뉘어 작품을 공모하며 1인당 2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02)735-5864

불교방송 '찬불가합창곡' CD 출시

불교방송은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실시한 신작찬불가100곡 중 선곡해 엮은 '찬불가 합창곡' 1(42곡) · 2집(45곡)과 CD판을 제작했다. 작곡가 김동환씨가 법회현장에서 쉽게 불려질 수 있게 편곡했으며 찬불가 CD는 불교방송 가릉빈가 합창단이 창단1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공연실황을 수록한 음반으로 '삼보에 귀의합니다' '지겨의 노래' '찬미의 나라' '우리도 부처님같이' 등 20곡이 들어있다. (02)705-5301~6



◇제1회 건축사진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불국사 석축기단'.

건축사진전 대상에 '불국사 석축기단'

불국사의 석축기단을 찍은 사진이 제1회 건축사진전람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건축사협회가 마련한 건축사진전에서 강신정씨(국민대 건축과 4)가 출품한 '불국사 석축기단'이 금상을, 은상은 방명세씨(정림건축)의 '지붕뚜껑'이 차지했다. 입상등 입선작들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일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전시된다.

97년 '이달의 문화인물' 초의스님 등 12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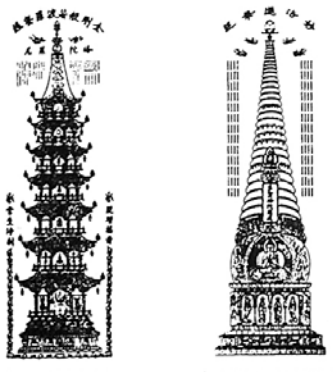
문화체육부는 내년 '97년도 이달의 문화인물로 초의스님(1786~1866)등 12명을 선정 발표했다. 해당 달마다 한명씩 각종 기념사업과 행사 등을 펼치게 될 내년도의 문화인물은 다음과 같다.

△1월=송석하(민속학의 태두 1946년 국립민족박물관 창설) △2월=성현(악학궤범 편찬) △3월=최윤덕(대마도 정벌한 무신) △4월=이중환(조선후기 지리학자) △5월=초의선사(다도 정립) △6월=한석봉(서예가) △7월=이세보(조선시대 최다 시조작가) △8월=박제가(실학자) △9월=박진(연극인) △10월=장지영(한글학자) △11월=왕인(일본에 문물을 전해준 백제학자) △12월=송진우(독립운동가)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가로)63㎝×(세로)160㎝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① 성지관음회(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 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 이 氣(기)는 심신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받게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 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세크할 수 있고 그 장·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을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심중판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과정을 일으켜 심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성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 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시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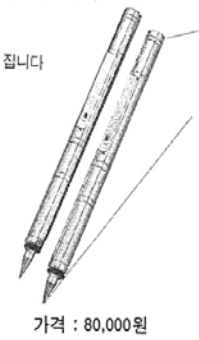
대구여래한방

막힌곳을 편안하게 통하게 해주는 氣針法 !

파-워침 요법

보건복지부 허가 제 5568호 보건복지부 품목허가 제1호

인체의 경락과 아픈 자리에 눌러만 주시면 인체활성 에너지가 경락을 통해 온몸에 퍼집니다. 생명에너지(HRANYA)의 충만한 흐름으로 가볍고 상쾌한 느낌을 직접 체험해보십시요.



부드러워 집니다
맑아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지속적으로 초점방사 시킵니다. 초점 실버 포인트로 경혈, 경락을 통하게 하며 반영구적으로 제독 처리된 POINT

※ 머리가 심하게 아프십니까?
※ 목덜미가 횡상 뻐근합니까?
※ 어깨가 몹시 아프고 팔이 뒤로 안올라갑니까?
※ 손끝과 팔이 저리십니까?
※ 허리가 몹시 아프십니까
※ 팔꿈치가 몹시 아프십니까
※ 무릎에 물이 생기고 아프십니까?
※ 다리가 저리고 땅기십니까?

가격 : 80,000원

허란야 氣 팔찌

소비자가격 45,000원
자매품 : 허란야 파-워 목걸이 30,000원(남 · 여공용)

天一氣功研究會
파워-침 研究學會 02) 455- 6944(대)